



전주농협, 농업인행복콜센터 돌봄 대상자 물품 후원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과 농협전주시지부(지부장 하양진)는 최근 전주농협 본점 5층 대회의실에서 ‘농업인행복콜센터 돌봄 대상자 생필품 꾸러미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촌지역 고령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정서적 돌봄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행사 이후 농업인행복콜센터에 등록된 돌봄 대상자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임인규 조합장은 “고령 농업인들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자 준비했다”며 “전주농협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교도소, '마약퇴치의 날' 맞아 예방 캠페인

전주교도소(소장 윤순풍)가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교정의 문을 넓게 열고, 지역주민과 함께 마약 없는 세상을 위한 뜻깊은 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전주교도소 직원들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교도소를 찾은 민원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약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일깨우는 리플렛을 정성껏 배부하며 마약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의 캠페인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중독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담은 자리였다. 윤순풍 전주교도소장은 “마약은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의 유혹 앞에서 공동체의 연대와 관심이 절실하다. 전주교도소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캠페인은 전주교도소가 교정시설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간의 장이 됐으며, 단 하루의 행사가 아닌, 마약 근절을 위한 꾸준한 실천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마약없는 건강한 사회를 향한 교도소 직원들의 따뜻한 온정을 가진 이날의 행보는 오늘도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고창소방서, 세대 간 소통으로 조직문화 개선 나서

고창소방서는 지난 25일, 조직 내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2025년 2분기 NEW 투웨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MZ세대의 조직 유입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넘어, 청렴 의식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까지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멘토링은 불링을 통한 팀워크 활동을 시작으로, 직원 간 공통 관심사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와 의견 공유, 점심 식사 및 커피 모임 등으로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참여자들과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대 간 이해를 더욱 깊게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광화면 복지기동대, 어르신 가정 미끄럼방지매트 설치

김제시 광화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안광연)가 26일,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4가구를 방문해 욕실 및 화장실에 미끄럼방지매트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중 겪을 수 있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광연 복지기동대장은 “작은 실천이지만 어르신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기동대는 평소에도 소규모 수리, 생활 안전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더 나은 지역의료 환경 조성에 힘 보탬 것”

전북대병원 조대선 어린이병원장, 대한병원협회장상 수상
지역 보건의로 발전·지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 인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조대선 어린이병원장이 지역 보건의로 발전과 지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대한병원협회장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전북병원회와 각 병원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한병원협회장상을 수상한 전북대병원 어린이병원장 조대선 교수(소아청소년과)는 지역 사회의 감염병 예방 활동에 힘쓰고, 전공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북대병원 어린이병원장으로 재직 중인 조대선 교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북대병원 감염관리실장을 맡아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사회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했으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교육인재개발실장을 맡으며 전공의 수련 및 직원 교육 책임자로서 우수한 지역의료인재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양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전북대병원 어린이병원장직을 역임하며 소아청소년 질병 관련 연구 및 예방 사업, 치료 지원사업, 어린이 병원학교 사업과 같은 공공 의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민의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 조대선 어린이병원장은 “지역 의료의 발전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함께 힘써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더 나은 지역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종철 병원장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전북대병원 구성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전북대병원이 안전하고 신뢰받는 지역 의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한결같은 모습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여성새일센터, 미니취업박람회 성황리 개최

직업교육훈련 수료 여성 대상, 현장 면접·채용 연계 지원

전북여성새일하기센터(원장 정정희)는 26일 전북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 구직자를 위한 미니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경력단절 등 구직 여성들의 취·창업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인 실버케어전문가 양성교육, 경리사무실무자 양성과정 수료자들이 참여해 직업역량을 갖춘 예비 인재들과 기업 간 직접적인 연결의 장이 됐다. 더불어, AI·SW미래인재 양성과정 훈련생들은 창업공동체의 사회진출 및 창업 지원 확대를 위한 체험부스를 운영, 관련분야 홍보와 실무 경험을 쌓기도 했다. 현장 면접에는 실버케어분야 전주노블요양원, 전주재활주간보호센터, 늘평한요양복지센터가 참여해 노인복지 분야 구직자와 면접을 진행했고, 경리사무실무분야는 (유)홍익종합관리, 노무법인 마루, 미담회계법인인 경리·회계사무직 취업 희망자의 면접이 이뤄졌다. 현장면접에 참여한 (유)홍익종합관리 노동환 대표는 “취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구직자들을 만나 고용까지 이어진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정희 원장은 “교육 수료에 멈추지 않고 일할 의지와 능력이 충분한 여성들이 실제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센터가 끝까지 책임지고 돕겠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지속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으로 신뢰받는 더 투명한 전북교육’이라는 청렴 비전에 맞춰 교육장과 직원들이 소통하며 서로 존중하고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최용훈 교육장이 직접 내린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으며 교육장과 직원들 간 대화의 시간을 가져 소통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ESG 실천을 위해 일회용 컵 대신 직원들의 텀블러에 커피를 담아 제공했으며, 상호 존중과 청렴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텀블러에 부착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최용훈 교육장은 “작은 나눔을 통해 청렴과 상호 존중이 일상의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직원들이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의 가치를 체감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도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민족통일 고창군협의회 등, 평화공존 특강

민족통일고창군협의회(회장 김경주)는 26일,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과 협력하여 고창초등학교에서 ‘평화공존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고창초등학교 5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평화의 소중함과 공존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강의를 전쟁과 분단의 역사, 그리고 일상 속 평화의 의미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풀어나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배려하고 나누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강사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했고, 발표와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강의 내내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모습에서 아이들의 순수한 관심과 높은 집중도를 엿볼 수 있었다. 김경주 회장은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어린 세대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평화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가 통일의 필요성과 평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특강은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평화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교육지원청, ESG 실천 청렴 커피 나눔행사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은 지난 25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층 샘커피카페에서 직원 간 상호 존중과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커피 나눔 행사 ‘커피 한 잔, 깊은 존중, 함께 만드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으로 신뢰받는 더 투명한 전북교육’이라는 청렴 비전에 맞춰 교육장과 직원들이 소통하며 서로 존중하고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최용훈 교육장이 직접 내린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으며 교육장과 직원들 간 대화의 시간을 가져 소통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ESG 실천을 위해 일회용 컵 대신 직원들의 텀블러에 커피를 담아 제공했으며, 상호 존중과 청렴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텀블러에 부착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최용훈 교육장은 “작은 나눔을 통해 청렴과 상호 존중이 일상의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직원들이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의 가치를 체감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도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전개공, 임목자원화 업무협약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는 주택, 산업단지 및 택지조성 등 산지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목재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과 공공개발지 임목자원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사의 개발 사업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임목 폐기물을 진흥원의 ‘공공개발지 임목자원화’ 제도를 활용해, 국산 목재 수급에 기여하고 임목 폐기물 감소를 통한 환경·경제적 가치 재창출로 탄소중립 등 ESG경영 실천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르면 전북 지역 산림 면적의 1%를 개발할 경우, 약 33만톤 국산 원목 자원화를 통해 폐기처리비용 절감을 포함해 425억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고, 연간 승용차 25만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저감이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남원소방서, 서남하나어린이집 원아들 편지 전달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26일, 서남하나어린이집 원아 29명이 작성한 감사 편지를 전달받아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편지는 평소 안전교육을 통해 배운 소방관의 역할과 노고에 대해 아이들이 직접 표현한 것으로 △불이 나면 도와주세요 감사해요 △항상 조심하세요 △소방관 아저씨 최고예요 등 순수한 마음이 담긴 손 편지가 전해졌다. 편지를 전달받은 소방서 직원들은 “아이들의 진심 어린 응원에 큰 감동으로 다가와 출동과 훈련으로 지친 몸과 마음에 큰 위료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경찰 청송회, 소통·배려 위한 신상간담회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 청렴선도그룹인 ‘청송회’(회장 김화금, 회원 43명)에서는 26일 내장산국립공원 경내에서 서장, 청송회원 등 15명이 참석, 신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유롭고 허심탄화한 소통을 통해 청렴의식과 공직윤리를 함께 되새기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청렴동아리 회원들은 가벼운 산행을 함께하며, 일상적인 고충과 청렴 실천 사례, 일상 근무 중 겪는 고민 등을 자연스럽게 공유했다. 박상훈 서장은 “청렴은 지시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자율성을 통해 구성원 개개인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한편, 정읍서 청렴선도그룹인 ‘청송회’에서는 정읍경찰청의 청렴하고 신명나는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협업해 장애우와 함께하는 산행, 소외계층과 나눔 등 인권경찰 감수성을 향상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 교월동지사협, '여름나기 물품 지원' 행사성료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조종욱)가 26일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를 앞두고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장애인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한 ‘여름나기 물품 지원’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함께 이웃들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으며, 지원 물품은 여름철 필수품으로 구성된 5만 원 상당의 키트를 제공했다. 이날 위원들은 직접 모여 하나하나 손수 물품을 포장하며 정성을 더했으며, 취약계층 40가정에 방문해 물품을 전달했다. 또, 건강 상태와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 대비 온열질환 대처 요령을 함께 안내하는 등 계절에 맞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그 의미를 더했다. /김제=곽노태 기자